

삶의 질

15대 과제

8. 탁아비용 50% 국가지원을 (하)

'육아는 사회공동의 책임' 일 어린이집은 공공기관

96. 8. 31

오늘날 일본은 2만2천여개소의 인가받은 보육원(어린이집)에서 2백만명에 가까운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만 4살에서 6살까지의 어린이 가운데 약 30%와 2~3살 유아의 약 20%, 그리고 1살 미만 영아의 5%가 공공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다. 여기에 주로 영아들을 보육하는 2천5백개소로 추산되는 비영리 무인가 가정보육시설과 약 5백개소로 추산되는 영리적인 베이비호텔(놀이방)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서구 선진산업사회의 종일보육제도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보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시설을 자유경쟁 시장경제 체제에 내맡겼던 미국 등과 달리 철저히 맞벌이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시설로 꾸려왔다는 점이다. 어린이의 어머니를 전업주부로 전제해 방학이 있고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어른들의 직장과 마찬가지로 방학 없이 종일 보육을 하는 보육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발달과 생활교육을 강조한다. 글이나 숫자는 가르치지 않기로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생활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교육이 더 소중하다고 보는 철학 때문이다.

인가된 보육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운영주체가 민간인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육원은 부모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과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징수하고 각 보육원 어린이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보육원에 따로 보육료를 내지 않고 세금처럼 각 구청에 내고 있다.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세 납부실적에 따라 10등급으로 책정돼



일본 후카가와시 '다도시' 보육원의 어린이들. 어린이들에게 학습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소득따라 보육료 차등징수...절반 정부몫 여성노동력 확보목적 출발 '질'에 눈돌려

있다. 1등급인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며 2등급인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자녀는 우리 돈으로 2만원, 최고액을 내는 10등급은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단가(3살 미만의 경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월 48만원 정도)를 전부 부담한다.

전체적으로는 한 어린이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인 표준보육단가의 절반 정도를 부모들이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육아현실은 하루 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65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자라는 기업쪽의 요구를 누르고 기존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20년간에 걸친 집중적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도 보육의 질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보육원의 수를 늘리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많은 혁신적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

이러한 기초지방자치체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보육원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화되고 조직화된 주민운동의 힘, 즉 정치적 의식이 고양된 젊은 부모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 보육원의 규모·시설·설비·생활내용·보육료 등은 지방자치체 단위로 큰 편차가 있다.

보육의 질을 가능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활내용도 누가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체와 보육원마다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일본적 보육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 의례화한 집단적 활동, 즉 영아기부터 매일 수차례 줄서고 일제히 용변을 보고 똑같은 인사법 교육을 되풀이하는 곳도 있고, 이러한 집단활동을 지배문화 보수 이데올로기의 획일적 재생산이라고 비판하며 하루종일 줄서는 일이 없이 실내와 실외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예절교육과 존댓말 훈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자유놀이로 구성돼 있는, 진보적 가치관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보육원에서도 어린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보육을 관료적 통제나 영리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 공공복지로서의 보육제도의 틀 안에서 다양하게 실험되면서 일본 사회의 미래 세대를 키우는 보육현장을 만들고 있다.

정병호 한양대 인류학과 교수·공동육아연원 공동대표